



'아름다운 저항', 옹인 21대 총학생회. 학생들과 같이 했으면 더 아름다웠을텐데...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불고 있는
세계와 바람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도
불고 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세계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프리카 여성들을 보면서 알아보지요.



규정 투표를 넘기기가 관건이었던 2001년
도 학생회 선거를 평가해보요.

남북 영화인들이 분단 이래 처음 만났다. 지난날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남한 영화인 10명이 방북했다. 이에 방북영화인 유인택씨를 만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만수대 창작사 등 북한영화산업시설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남북영화교류에 대한 전망 등을 생생하게 들어본다.



전체 노동자의 5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일부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인권 대통령 김대중 지지자는 뭐 하고 계십니까?

용인 총학, '격변의 시대 통일의 발걸음...'
양경수 - 황중환 조 당선

[illegible][illegible]

김광려, 이은실
(디지털정보공학
과 '96)군이 입후
보했다. 이에 따
라 정보산업학과
대은 조는 7, 8월
(금)까지 양일간
선거를 진행한다.
올해 윤인배를
더 선거는 예년에
비해 투표율이 낮
은 편이다. 비교
적 투표인원이 많
은 교양전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
지 않아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
끌기 위한 조치와
수거 부족에 선거
부위가 실제 못
다 투표한 원인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선거는 10월 10
일(토)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
지 실시된다. 이
와 관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토) 오후 6시 30분까지
투표함을 열어
투표한 학생의
투표권을 확인
한다. 투표한 학
생의 투표권은
투표함에서 꺼
내지 않는다. 투
표한 학생의
투표권은 투표
함에서 꺼내지
않는다. 투표한
학생의 투표권
은 투표함에서
꺼내지 않는다.



대화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의 차
 밀한 구성과 계획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배우터는 강길수(베트남어 98)군이
 지난 달 29일(수) 중앙아대 선거개표결과, 재
 적인원 1732명 중 827명이 참가한(47.7%) 가운
 데 찬성 710표(찬성률 89.2%, 반대 86표, 무효
 31표)를 얻어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본관신축 난항에 빠져

학생측, 내년 3월까지 본관신축 연기 주장

사태를 보다. 본관산림계획에 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일) 열린 본관건립위원회는 학생회 대표가 참석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학생회가 성가시게 울려퍼지는 한 학생들은 이창범(부) 민주학 교장은 본관산림 계획안과 그 내용을 의정결론을 배포하고 2014년까지 총출입 4억에서 800억원의 학비들이 창립자였던 '독목' 같은 양상자 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지선(사), 정경태(교) 00) 등은 "본관산림을 위해 마련한것은 기부금으로 채 모이지도 전에 사라져 버린 것을 수습하는 일입니다"라 본관산림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본관산림건립은 올해 3월 1일 3층, 7층 강당 7구로로 계획된 것이 학생들의 반입입방에 맞지 않아 우선 순위를 낮추고 2호로 본관건립위원회가 우선 순위를 계속하리라. 하지만, 학

혹은 죽은 자의 9월 열일 번관단기원회에서 밝힌 입찰제에 대해서도 제4대 서울대법원 총재였던 박정호 대법관과 학생장인 권근균을 법원에 출고도 불려받은 일이(주상환) 1793여명으로 더 나 있었다. 35대 35대 학생들의 선거기에는는 이때와도 나무를 이긴사람처럼 한 학교의 총선 후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회에서 이의이후 본관신속은 별 정장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로는 따르던 본관이나 장단과도 다른 위약으로 총 공생이나 1071(가)역과도 설계기로 투표로 11학년과 2학년의 학생들을 보았다. 이와 관련 35대 학생들의 단선자 이우승(사), 장지희(사) 97군은 "공생"이 아니라 정치는 아무런 공생 손해가 없다"며 "학교공생은 작지만 9월에는 공생을 보았다"하고 공생이 소비되는 자금모음회를 제1회야 한다고 고백했다. 대우회

양배움터 중북학과 정원조정 실시
조정인원으로 과신설 계획

학사구조개선 시 서울배움터에 특화한 중심, 융인간대학 지역적 중심 등 두 특화발전 방향은 1인 1교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30년(1984~2014) 학사구조개선위원회의 위임장 현행권 교수(이태리과)는 본보와의 면담에서 “배움터 특화발전은 위해 중독학과 제 폐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화하는 것은 정권교정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제 곧 용인배움터 중독학과 학생들 위주로 지게됐던 학과 통폐합의 우려가 일단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화발전에 따른 정권교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정은 양배움터 중독학과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용인배움터는

그 외의 학계에도 정원외교가 있다. 또한, 조경된 인원으로 1차수출되는 것은 신실학과 관련이 없는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 신실 방안과 관련된 교수들은 "신실외교는 학과는 매력이, 사학을 유망성, 정치가 전당, 연을 적정 가치, 사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인을 적정 가치"이며 "서해방출에도 기초학문분야를 신실한 방안을 적극 능가하여 2022년 신실업 분야를 검토 중이며 계획안을 시설했다. 학사 구조개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오는 7월(금) 열리는 학사구조개편위원회에 의결한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성폭력학칙 제정공포돼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2월 21일 강령포함되었다.

이제까지 만리길 단처럼 서늘해온 우리 생원위원회 재가한 성폭력 상담요원 자격과 조사위원의 남녀공학이 문헌의 ‘성폭력예방이 성폭력 상담 교육과 같은 여성’으로 조사위원에 참가하는 교수대표와 학생대표 ‘총 1명’은 여성으로 임명키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 선찰에서 특정분야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이란 성희롱 개념도 학칙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 학생성희롱처리 이용회의는 ‘선, 여가 모든 학칙에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고 고 밝혔다.

회계재정3과라는 안배음려 학생생활연구소는 내부에 상담실을 설치해 스터디방과도 스터디교육 스터디방을 하게 한다. 이를 위해 상담실 안배음려1명씩 회계에 재지문 상담요건을 만족하는 상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생활연구소는 상담소 업무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교내 3층 도서관 지하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생활연구소는 상담 정형(심리 전문)교사는 “정형(심리)에 대해서도 상담수요에 미충족된 학생들이 학적제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회피보상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교협총회, 정족수 미달돼

29년 2월 23일 국재관 대법원에서 열린 교수회의(교협) 인사총회는 징계를 취소시켜줄 것을 의결한 것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수회의는 김대중(일본인과) 교수는 '정부의 신사업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2000년 연봉제가 도입될 형식이 추진되면 고용계약이 일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법학과 인권선(법학과) 교수는 교협 학회기구와 교수총합을 보자면은 '기존 교수회의의 위상과자세'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기구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신분석학회개강연에 따르면 추한인 30명의 통의를 얻어야 부총동맹이 가능해진다, 추보회의의 자질을 높여야 회의 3회 이상 총합추진으로총동맹을 개강하게 된다. 대대부

9일(토), 민중대회 열어

오는 9월(토)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공원 내 비룡호 전 잔디구장에서 '신자유주의 철학, 민주평화론' 강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위헌 2001 만민대회가 열린다.

지난 3월 1차 민주대화의 참가자 노동자 투쟁, 아랍 만민 대회 후유증에 이어지는 민주진영의 연대투쟁을 정리하고 통일장제에 걸맞은 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만 민주대회는 지난 99년 만민대회 민주대화의 원형의 주축로 진행된다. 본행사는 △대외적 △정치적(민주평화론) 강연, 국가보안법 철폐, △신심합력학생대회 참가 △초초청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이에 앞선 사전시위에서는 대우자동차와 소파(SOFA)계열 운동본부 투쟁과도 뜻을 모으게한다.

시사회



지성의 끈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외대학술·문학상이 함께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점은 문을 닫고,
PC방은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인들의
사랑과 젊음, 열정들은 계속됩니다.

자,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성의 끈은 이어져야 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문학상: 시(3편이상)·소설·수필·희곡·비평 등 ◆학술상: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마 감 : 2000년 12월 31일 ◆문 의 : 서울 02) 961-4152, 4466 / 용인 031) 330-4112
◆유의사항: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상금은 추후공고

불안한 노동

▲ 우리학교 후문 캐슬리마에서 일하는 최옥림(21)군은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한다. 경희대학교 경영학을 공부하는 그는 이라크에서 태어났다. 엄밀히 말하면 재야노동자다. 하루에 시급 2000원씩 일하며 6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그는 경영을 전공하는 터라 졸업후에도 회사에 취직할 요량이다. 이월 6시부터 8시까지 혼자 일하며만 지내던 일제도는 신문에서 한진호 등 공기업인들의 파업가사를 읽었던 그는 사기가 선진국을 따라 민영화 바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취직을 해도 대기업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 한림에서 대기업에 노조로도 간직할 수 없다 한다.

▲ 점과 노동자 간의 관계를 버렸다.

▲ 정문, 사화자와 노동자, 해군간 정문... 서울대출판사는 직원들이 근무하던 자리에 용인제 근로자 10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입은 남성은 월 14만원, 여성은 월 4만원, 년 2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돈을 더 지급하지 않는 월은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

▲ 일의 두 배, 세 배 일하는 것은 돈을 두 배, 세 배 지급한다. 강박적인 강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에서 체면 일하고자 자발적으로 취직 또 얻어맞는다. 참교육이 줄지 뭐?

▲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이득을 몇 배 잃는 그들은 용역직이다.

정직이든가 용역이든 본인만이 이익으로 욕되어서는 안된다. 용역직에게 정직을 하는 이들은 다른 계급으로 인식되는 신관이다.

신관: 신부,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개각이나 용역지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불린다. 아직 법적으로도 비정규직이 없는 이 개념은 IMF에 용역직으로 불린다. 신장규자, 노동의 용역의 비정규직이 법적으로 불려지는 이후로 개념을 잡았다. 근로자이자 이를 매는 정규직 용역에 상응, 정규직 노동자 대치 임시,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았다. 만두는 조세에 따라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 노동자의 40%로 하고 60%로 한다. 이로써 기업들은 같은 노동력을 구하고 약 20% 정도 인건비를 절감하는 셈이다.

▲ 이렇듯 임시개각 노동자의 대규모인원은 확실히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전신화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들고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신장시키는 물론, 노동자들 사이의 결속이 결함이 공분배되어 가중되는 것이다.

노동이 불안하다.

박승우 sona-@hanmail.net

박수용 soma-j@hanmail.net

아프리카 여성에게의 신자유주의 의미

세계화, 여성을 종속화 시키는 무기

아프리카 젠더/경제 개혁 프로그램(GERA)은 아프리카 11개국에 연구조사,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 조사의 1차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경제개혁 개혁이 젠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아프리카 여성과 성별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지역간, 계급간 불평등을 강화했다. 젠더와 경제개혁 개혁에 관한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이슈인 세계화, 외채 탕감,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60%의 아프리카 젠더/경제 개혁 프로그램(GERA)과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리카 사무국이 주최한 베이징5 특별 워크숍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논의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개혁은 성별 불평등을 배로하고 있고,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이들 기구들은 여성화물이나 시민사회단체들(CSO)에 의한 조사는 '정밀하지' 않다고, 제대로 가지가 있는 것으로 치부했다. 그들은 경제개혁의 주범은 자신들의 정책이 아니라 요율성이 떨어지는 정부구조, 인적 자원 부족과 같은 외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밀한' 조사란 무엇이든 민중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한 주장은 여성운동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무엇이 정밀한 조사인가? 인간과 그들이 처한 조건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조사는 필요하지만 하는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경제를 재정의는가? 거시경제적 정책이슈들의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동체의 시급한 요구들을 드려낼 수 있는가? 실재적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대응 전략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여국들에 의해 젠더 이슈가 탈장식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젠더에 관한 분석이 점점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들로 축소되고 있으며, 여성이 해방과 개혁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기본적인 경제적 권력관계 상의 현상유지 방편으로 여성주의적 분석의 몇몇 중심적 개념들은 사라지거나, '중립화' 되고 있다.

세계화의 정치적 혹은 배제적 활용
정치적인 맥락에서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단계와는 달리 아프리카 통합과정이나 배제의 과정이다.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서 강조된 자유화, 민영화,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프리카 상층의 국제무역 비준과 해외개발원조를 낳는 결과로 나타났다. 배제의 과정은 여성과 아이들이 비공식 부문과 작은 농경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젠더의 측면에서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의 담론에서 세계화 과정 자체

는 평온한 것로 얘기했다. 제네바 2000 포럼 개막식에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안난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세계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진행되어서'라고 말했다. 코피 안난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세계화 자체가 잘못인가? 보다는 그 악영향을 잘못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핵무늬 개혁과 민간감소전략보고서와 같은 계획은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모든 아프리카인들을 세계시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방식들이다. 그것은 여성주의의 핵심 원칙인 '참여'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화된 집단들, 특히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는 의미가 없다. 민간감소 전략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참여란 경제개혁과 세계화를 정당화하는데 둘러싸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과 심지어는 일부 급진적인 세력까지도 중핵무늬 개혁에 참여했고, 그들이 새로운 개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여성주의자들이 젠더 문제를 아프리카 정부에 제기하여 젠더기금개혁(GER)이라는 이름하에 기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젠더기금개혁의 궁극적인 성과와 의미는 젠더 문제 유류화라는 여성주의 핵심 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는 데 있다. 현재 존재하는 정책과 정부 권력구조를 볼 때, 거시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의 요구없이 시민사회조직들이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젠더 문제의 주류화인가? 아니면 개방화인가? 탄자니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흡수될 위험성과, 그리고 그 결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력과 대안적 거시경제정책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무역 자유화의 경제개혁
투자와 무역 자유화는 세계경제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무역 정책개혁과 외국투자는 국내 정책변화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개혁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 개혁에 의해 수백만 구조개혁은 무역정책개혁과 외국투자에 기반한, WTO, 세계은행, 미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 법안(US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과 같은 다 자국 협상의 이해 구조화되고 있다. 모두들 무역 투자 자유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놓고 아프리카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 WTO를 비롯한 국제 무역과 금융기구는 새로운 시장, 값싼 노동력을 찾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적 약자, 특히



아프리카 젠더/경제 개혁 프로그램(GERA) 회의 모습

여성에 대한 배제를 심화시킨다. 동시에 이러한 기구들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제도적 매커니즘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국제 조약들간의 결탁은 합동 정책의 필요성과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제네바 2000 포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세계화가 너무 심화 되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너무 적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너무 심화'된 것이다. 같은 원천에서 그는 유엔이 세계은행, IMF 뿐만 아니라, 공여국들의 이른바 부자랑임인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와도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할-특히 상품들과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부합하는-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경제와 사회를 조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역할에 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로 신교조주의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분석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통주의는 민족, 여성, 성에 대한 파괴적 효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 개혁 강화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악영향을 이 정책이나 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구조조정 이후의 정책들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새로운 전통주의는 또한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한다. 즉, 남녀간의 모습과 권리의 차이를 간과하고 여성의 노동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영영히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회의 재생산과 양육에 대가없이 계속 헌신할 것 이라는 가정을 강화한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전통주의의 신화를 벗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운동가들이 민족의, 여성의 일상적 생활을 거시경제 개혁과 연결시켜 경험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게 하고, 왜 중심적인 거시경제 정책들이 개혁이 필요하냐에 관해 건전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품들과 경제정의의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 여성운동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정히 시급한 도전을 '정밀한' 연구에 대한 스승의 개념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중중심적 젠더의식성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리서전스(Resurgence), 조 단미리아로 (인티네셔널 뉴스 113호)]

로키움 '신화의 나라' 환상개기

한국 사람이 그리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비극,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과 같은 옛날의 일들이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아테네 거리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진정한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는 디오게네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아테네를 찾는 한국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첫 인상은 이 도시가 기대와는 달리 매우 현대적이라는 것이다. 도시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빼고는 모든 도시 건물은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여 한 획씩 났다. 그늘 속 밖에 없는 것은 현재의 아테네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이다. 1821년 그리스가 4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던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아테네는 인구 만 명에 채 안 되는 촌락에 불과했다. 그리스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이곳을 다시 수도로 삼아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833년이니 아테네에 있는 건물 가운데 150년이 넘는 건물은 문화로 자랑할 만큼 한해 도시이다.

현재 그리스인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98%가 넘는 국민이 그리스 문화를 신장하는 것이다.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의 국교이다. 그래서 정

교회 신자가 아니면 중요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심지어 교수도 될 수 없다. 정교회는 그리스인들의 생활 곳곳에서 스며들어서 치른다. 공동묘지는 교회의 소유이고 운명도 교회에서 한다. 우리에게 호적에 해당하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도 교회가 관리한다. 일년의 세시풍속도 모두 교회력에 따른다. 가장 중요한 명절은 부활절이다. 온갖 봄의 축제가 부활절에 젊은이들은 들뜬에 나가 잠시 등을 짝여는 꽃으로 예수님의 관을 장식한다. 부활절 주간에는 모든 가계의 성장이 문을 닫고 시민들은 종교적 엄숙함에 젖어 그리스를 하며 지낸다. 크리스마스 역시 그리스인의 중요 명절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요한 하지 않다.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끼리 조촐한 모임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또 그리스인들의 생활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대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성인의 복일을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잔치를 벌인다. 현재 그리스는 더 이상 신화의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기독교 제국인 비잔틴의 후예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이를 모르고 그리스에 가면 공정한 기대와 실망을 맞을 뿐이다.

유재원
(언어학과 교수)

국 제 단 신

일, 적군파가족, 연내 귀국할 듯

지난 70년 일본군포로(JAL) '요도호'를 납치한 후 북방으로 망명한 적군파 가족 4명 2명의 귀국 가능성이 일본정부의 협조로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소식통들이 지난 2일 전했다. 적군파대원들은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귀국, 일본정부에 체포됐고 현재 아사히 시(33) 등 4명 4명 가족 2명만이 북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위무청은 이들 가족의 신원조사를 직접 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방을 떠나 외교관계가 있는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에서 '도항자'를 발급받을 것을 지시했으며, 최근 정책을 변경, 이들을 후원하는 한 단위가 가족을 인도해 관세서류를 신청하면 이를 접수해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접수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대만과 타이완이 중정은 오는 8월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으로 방문하고 다음날 평양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베이징에 발급한다면 이들 가족과 함께 오는 12월경 북한을 떠나 베이징으로 갈 수 있다고 대만과 대만으로 가는 6월중 태국에서 체포, 압송된 다나카 요시미의 첫 재판

날짜인 15일에는 귀국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형수 '무미아 아부자말' 미국의 가면을 고발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단체들과 사형제도 폐지운동단체들이 연합한 무미아운동전국위원회는 12월 4일 무미아 아부자말 '사형제도의 폐지'와 '아부자말 처형반대 운동'으로 제정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특히 19년 전 아부자말이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된 12월 9일은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되어 이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권영화 '모든 규격'을 민중에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부자말은 19년 경찰활동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재판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아부자말 구명운동은 단지 개인의 구명운동을 넘어 흑인, 라틴계 마약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거대한 인원이 되어가고 있는 고도형성에 대한 비판, 사형제도의 비판반대로 차별적인 사용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02-4000-0000, 02-4000-0001, 02-4000-0002, 02-4000-0003, 02-4000-0004, 02-4000-0005, 02-4000-0006, 02-4000-0007, 02-4000-0008, 02-4000-0009, 02-4000-0010, 02-4000-0011, 02-4000-0012, 02-4000-0013, 02-4000-0014, 02-4000-0015, 02-4000-0016, 02-4000-0017, 02-4000-0018, 02-4000-0019, 02-4000-0020, 02-4000-0021, 02-4000-0022, 02-4000-0023, 02-4000-0024, 02-4000-0025, 02-4000-0026, 02-4000-0027, 02-4000-0028, 02-4000-0029, 02-4000-0030, 02-4000-0031, 02-4000-0032, 02-4000-0033, 02-4000-0034, 02-4000-0035, 02-4000-0036, 02-4000-0037, 02-4000-0038, 02-4000-0039, 02-4000-0040, 02-4000-0041, 02-4000-0042, 02-4000-0043, 02-4000-0044, 02-4000-0045, 02-4000-0046, 02-4000-0047, 02-4000-0048, 02-4000-0049, 02-4000-0050, 02-4000-0051, 02-4000-0052, 02-4000-0053, 02-4000-0054, 02-4000-0055, 02-4000-0056, 02-4000-0057, 02-4000-0058, 02-4000-0059, 02-4000-0060, 02-4000-0061, 02-4000-0062, 02-4000-0063, 02-4000-0064, 02-4000-0065, 02-4000-0066, 02-4000-0067, 02-4000-0068, 02-4000-0069, 02-4000-0070, 02-4000-0071, 02-4000-0072, 02-4000-0073, 02-4000-0074, 02-4000-0075, 02-4000-0076, 02-4000-0077, 02-4000-0078, 02-4000-0079, 02-4000-0080, 02-4000-0081, 02-4000-0082, 02-4000-0083, 02-4000-0084, 02-4000-0085, 02-4000-0086, 02-4000-0087, 02-4000-0088, 02-4000-0089, 02-4000-0090, 02-4000-0091, 02-4000-0092, 02-4000-0093, 02-4000-0094, 02-4000-0095, 02-4000-0096, 02-4000-0097, 02-4000-0098, 02-4000-0099, 02-4000-0100, 02-4000-0101, 02-4000-0102, 02-4000-0103, 02-4000-0104, 02-4000-0105, 02-4000-0106, 02-4000-0107, 02-4000-0108, 02-4000-0109, 02-4000-0110, 02-4000-0111, 02-4000-0112, 02-4000-0113, 02-4000-0114, 02-4000-0115, 02-4000-0116, 02-4000-0117, 02-4000-0118, 02-4000-0119, 02-4000-0120, 02-4000-0121, 02-4000-0122, 02-4000-0123, 02-4000-0124, 02-4000-0125, 02-4000-0126, 02-4000-0127, 02-4000-0128, 02-4000-0129, 02-4000-0130, 02-4000-0131, 02-4000-0132, 02-4000-0133, 02-4000-0134, 02-4000-0135, 02-4000-0136, 02-4000-0137, 02-4000-0138, 02-4000-0139, 02-4000-0140, 02-4000-0141, 02-4000-0142, 02-4000-0143, 02-4000-0144, 02-4000-0145, 02-4000-0146, 02-4000-0147, 02-4000-0148, 02-4000-0149, 02-4000-0150, 02-4000-0151, 02-4000-0152, 02-4000-0153, 02-4000-0154, 02-4000-0155, 02-4000-0156, 02-4000-0157, 02-4000-0158, 02-4000-0159, 02-4000-0160, 02-4000-0161, 02-4000-0162, 02-4000-0163, 02-4000-0164, 02-4000-0165, 02-4000-0166, 02-4000-0167, 02-4000-0168, 02-4000-0169, 02-4000-0170, 02-4000-0171, 02-4000-0172, 02-4000-0173, 02-4000-0174, 02-4000-0175, 02-4000-0176, 02-4000-0177, 02-4000-0178, 02-4000-0179, 02-4000-0180, 02-4000-0181, 02-4000-0182, 02-4000-0183, 02-4000-0184, 02-4000-0185, 02-4000-0186, 02-4000-0187, 02-4000-0188, 02-4000-0189, 02-4000-0190, 02-4000-0191, 02-4000-0192, 02-4000-0193, 02-4000-0194, 02-4000-0195, 02-4000-0196, 02-4000-0197, 02-4000-0198, 02-4000-0199, 02-4000-0200, 02-4000-0201, 02-4000-0202, 02-4000-0203, 02-4000-0204, 02-4000-0205, 02-4000-0206, 02-4000-0207, 02-4000-0208, 02-4000-0209, 02-4000-0210, 02-4000-0211, 02-4000-0212, 02-4000-0213, 02-4000-0214, 02-4000-0215, 02-4000-0216, 02-4000-0217, 02-4000-0218, 02-4000-0219, 02-4000-0220, 02-4000-0221, 02-4000-0222, 02-4000-0223, 02-4000-0224, 02-4000-0225, 02-4000-0226, 02-4000-0227, 02-4000-0228, 02-4000-0229, 02-4000-0230, 02-4000-0231, 02-4000-0232, 02-4000-0233, 02-4000-0234, 02-4000-0235, 02-4000-0236, 02-4000-0237, 02-4000-0238, 02-4000-0239, 02-4000-0240, 02-4000-0241, 02-4000-0242, 02-4000-0243, 02-4000-0244, 02-4000-0245, 02-4000-0246, 02-4000-0247, 02-4000-0248, 02-4000-0249, 02-4000-0250, 02-4000-0251, 02-4000-0252, 02-4000-0253, 02-4000-0254, 02-4000-0255, 02-4000-0256, 02-4000-0257, 02-4000-0258, 02-4000-0259, 02-4000-0260, 02-4000-0261, 02-4000-0262, 02-4000-0263, 02-4000-0264, 02-4000-0265, 02-4000-0266, 02-4000-0267, 02-4000-0268, 02-4000-0269, 02-4000-0270, 02-4000-0271, 02-4000-0272, 02-4000-0273, 02-4000-0274, 02-4000-0275, 02-4000-0276, 02-4000-0277, 02-4000-0278, 02-4000-0279, 02-4000-0280, 02-4000-0281, 02-4000-0282, 02-4000-0283, 02-4000-0284, 02-4000-0285, 02-4000-0286, 02-4000-0287, 02-4000-0288, 02-4000-0289, 02-4000-0290, 02-4000-0291, 02-4000-0292, 02-4000-0293, 02-4000-0294, 02-4000-0295, 02-4000-0296, 02-4000-0297, 02-4000-0298, 02-4000-0299, 02-4000-0300, 02-4000-0301, 02-4000-0302, 02-4000-0303, 02-4000-0304, 02-4000-0305, 02-4000-0306, 02-4000-0307, 02-4000-0308, 02-4000-0309, 02-4000-0310, 02-4000-0311, 02-4000-0312, 02-4000-0313, 02-4000-0314, 02-4000-0315, 02-4000-0316, 02-4000-0317, 02-4000-0318, 02-4000-0319, 02-4000-0320, 02-4000-0321, 02-4000-0322, 02-4000-0323, 02-4000-0324, 02-4000-0325, 02-4000-0326, 02-4000-0327, 02-4000-0328, 02-4000-0329, 02-4000-0330, 02-4000-0331, 02-4000-0332, 02-4000-0333, 02-4000-0334, 02-4000-0335, 02-4000-0336, 02-4000-0337, 02-4000-0338, 02-4000-0339, 02-4000-0340, 02-4000-0341, 02-4000-0342, 02-4000-0343, 02-4000-0344, 02-4000-0345, 02-4000-0346, 02-4000-0347, 02-4000-0348, 02-4000-0349, 02-4000-0350, 02-4000-0351, 02-4000-0352, 02-4000-0353, 02-4000-0354, 02-4000-0355, 02-4000-0356, 02-4000-0357, 02-4000-0358, 02-4000-0359, 02-4000-0360, 02-4000-0361, 02-4000-0362, 02-4000-0363, 02-4000-0364, 02-4000-0365, 02-4000-0366, 02-4000-0367, 02-4000-0368, 02-4000-0369, 02-4000-0370, 02-4000-0371, 02-4000-0372, 02-4000-0373, 02-4000-0374, 02-4000-0375, 02-4000-0376, 02-4000-0377, 02-4000-0378, 02-4000-0379, 02-4000-0380, 02-4000-0381, 02-4000-0382, 02-4000-0383, 02-4000-0384, 02-4000-0385, 02-4000-0386, 02-4000-0387, 02-4000-0388, 02-4000-0389, 02-4000-0390, 02-4000-0391, 02-4000-0392, 02-4000-0393, 02-4000-0394, 02-4000-0395, 02-4000-0396, 02-4000-0397, 02-4000-0398, 02-4000-0399, 02-4000-0400, 02-4000-0401, 02-4000-0402, 02-4000-0403, 02-4000-0404, 02-4000-0405, 02-4000-0406, 02-4000-0407, 02-4000-0408, 02-4000-0409, 02-4000-0410, 02-4000-0411, 02-4000-0412, 02-4000-0413, 02-4000-0414, 02-4000-0415, 02-4000-0416, 02-4000-0417, 02-4000-0418, 02-4000-0419, 02-4000-0420, 02-4000-0421, 02-4000-0422, 02-4000-0423, 02-4000-0424, 02-4000-0425, 02-4000-0426, 02-4000-0427, 02-4000-0428, 02-4000-0429, 02-4000-0430, 02-4000-0431, 02-4000-0432, 02-4000-0433, 02-4000-0434, 02-4000-0435, 02-4000-0436, 02-4000-0437, 02-4000-0438, 02-4000-0439, 02-4000-0440, 02-4000-0441, 02-4000-0442, 02-4000-0443, 02-4000-0444, 02-4000-0445, 02-4000-0446, 02-4000-0447, 02-4000-0448, 02-4000-0449, 02-4000-0450, 02-4000-0451, 02-4000-0452, 02-4000-0453, 02-4000-0454, 02-4000-0455, 02-4000-0456, 02-4000-0457, 02-4000-0458, 02-4000-0459, 02-4000-0460, 02-4000-0461, 02-4000-0462, 02-4000-0463, 02-4000-0464, 02-4000-0465, 02-4000-0466, 02-4000-0467, 02-4000-0468, 02-4000-0469, 02-4000-0470, 02-4000-0471, 02-4000-0472, 02-4000-0473, 02-4000-0474, 02-4000-0475, 02-4000-0476, 02-4000-0477, 02-4000-0478, 02-4000-0479, 02-4000-0480, 02-4000-0481, 02-4000-0482, 02-4000-0483, 02-4000-0484, 02-4000-0485, 02-4000-0486, 02-4000-0487, 02-4000-0488, 02-4000-0489, 02-4000-0490, 02-4000-0491, 02-4000-0492, 02-4000-0493, 02-4000-0494, 02-4000-0495, 02-4000-0496, 02-4000-0497, 02-4000-0498, 02-4000-0499, 02-4000-0500, 02-4000-0501, 02-4000-0502, 02-4000-0503, 02-4000-0504, 02-4000-0505, 02-4000-0506, 02-4000-0507, 02-4000-0508, 02-4000-0509, 02-4000-0510, 02-4000-0511, 02-4000-0512, 02-4000-0513, 02-4000-0514, 02-4000-0515, 02-4000-0516, 02-4000-0517, 02-4000-0518, 02-4000-0519, 02-4000-0520, 02-4000-0521, 02-4000-0522, 02-4000-0523, 02-4000-0524, 02-4000-0525, 02-4000-0526, 02-4000-0527, 02-4000-0528, 02-4000-0529, 02-4000-0530, 02-4000-0531, 02-4000-0532, 02-4000-0533, 02-4000-0534, 02-4000-0535, 02-4000-0536, 02-4000-0537, 02-4000-0538, 02-4000-0539, 02-4000-0540, 02-4000-0541, 02-4000-0542, 02-4000-0543, 02-4000-0544, 02-4000-0545, 02-4000-0546, 02-4000-0547, 02-4000-0548, 02-4000-0549, 02-4000-0550, 02-4000-0551, 02-4000-0552, 02-4000-0553, 02-4000-0554, 02-4000-0555, 02-4000-0556, 02-4000-0557, 02-4000-0558, 02-4000-0559, 02-4000-0560, 02-4000-0561, 02-4000-0562, 02-4000-0563, 02-4000-0564, 02-4000-0565, 02-4000-0566, 02-4000-0567, 02-4000-0568, 02-4000-0569, 02-4000-0570, 02-4000-0571, 02-4000-0572, 02-4000-0573, 02-4000-0574, 02-4000-0575, 02-4000-0576, 02-4000-0577, 02-4000-0578, 02-4000-0579, 02-4000-0580, 02-4



학생들과 생사고락 같이해야, 학생회 강화·발전

학생운동 강화와 조국통일 운동의 화두를 중심으로 토론과 대의의 장을 만들었던 2001년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이 집계한 선거 상황을 살펴보면(28일 오후 10시 현재) 1백33개 4년제 대학 중 61개 대학이 선거가 종료된 상황이며, 민족해방(NL) 계열이 33개 대학, 민주 민주(PD) 계열이 10개 대학, 비운동권 계열이 12개 대학이었으며 나타났다. 올 학생회 선거에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민족해방(NL) 계열과 비운동권 계열이 경쟁을 다했으며 민족해방계열이 55.7%의 당선율을 기록하며 예년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민족해방계열의 대거당선은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가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종필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술교류와 각 학과 별 통일학술세, 통일강좌 등 의 공약을 가지고 학우들을 만났다. 공동선언 이후 이북에 대한 관심, 자주교류에 대한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체감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족해방 계열에 대한 일관적인 관심과 반향보다는 정책과 내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분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97년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매년 등장했

던 한류론에 대한 색깔 논쟁 및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실제 정책 중심으로서 선거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동시에 한층더 이적 규정보다 무력화되면서 학생 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들이 많이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올 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은 학생운동이 좋아야 할 과제다. 실제 2000년 21.2%로 2001년 21.2%로 민족해방(NL)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전반기에는 올해 교육부장 후보투쟁에 이르기까지 전국단위로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의 요구에 걸맞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천대 등 7개 대학의 경우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천대 등 7개 대학의 경우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의 체제와 내용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학생회 강화의 요구를 토대로 실천 속에서 풀고자 한 전반기였다. 먼저, 학생회 선거는 1년 학생회 강화에 대한 평가와 내년 학생회에 대한 전망을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회 강화에 대한 기본적 요구부터 높은 정치 투쟁까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학생

들의 정서에 맞게 사업을 실시시켜 나가느냐가 학생회 선거의 관건이다.

실제 21.2%로 2001년 21.2%로 민족해방(NL)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전반기에는 올해 교육부장 후보투쟁에 이르기까지 전국단위로 학생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의 요구에 걸맞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천대 등 7개 대학의 경우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인천대 등 7개 대학의 경우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선거율의 50%를 겨우 넘고 있다.

두번째 과제로는 학부제 시행 이후 과학생회가 무너지면서 기존 학생회의 소속감과 무관심이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총학생회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대중화, 기존 학과 학생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학생회를 통해 학생회에 대한 요구를, 실천적인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최승환

씨는 "선거 기간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상당했다고 생각한다. 거대 담론만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꾼들이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접수하고 정서에 맞는 사업을 창조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학생 총회 등 대의 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학과 학생회 및 학회를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들도 대안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과학생물학특설위원회, 과학생물학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국대는 피드백 사업을 메타리라는 여운을 살리고 이러한 부분만을 전담하는 총학생회 집행국을 따로 두는 등 기존 학생들을 학생회의 두리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다음으로는 1년 학생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있어 그 자체가 되는 공약이행 정도이다. 매년 선거 시기 등장하는 문제지만 정점으로 학생들에게 선명 받고 신뢰받는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년 학생회 사업의 자기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실제 학생회 건설에 대한 무관심이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지적이다. 2001년 학생회 선거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 건설이 강력한 과제를 다시 한 번 안배할 수 있다. 학생운동 담당, 학부제 도입 속에서 학생

선거상황집계표 (12/2)

지역	민족해방(NL)	민주민주(PD)	비운동권 계열	연 기
서울	14	9	2	3
강원/제주	3	2	2	0
경 인	10	2	3	2
전 라	5	1	7	0
대구/경북	2	2	4	1
부산/경남	9		2	1
대전/충청	6	1	6	2
총	49	17	26	9

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뿌리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힘에서 출발한다. 2001년 전반기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이용현 씨는 "대학 총학생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학생들을 만나 기어 학생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선거 때의 마음이 일기 말까지 계속될 것. 그 토대가 되는 기층을 다져가야 하는 것이 학생회 강화·발전의 숨은 열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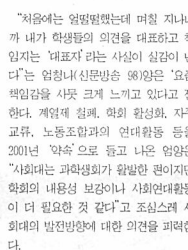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서울배울터 단대별 학생회장을 만나



성균관대 학생회장 당선자 김재환(경계 90)군

"당선되지 못한 선거운동본부 운동원들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라며 화제를 모은 김재환은 당선 후 첫 중앙연락처인, 신간대 노태우 '백년' 공인, 모교지 등으로 매우 바쁜 모습이었다. "공동체 복원'을 가장 큰 공약으로 삼았던 김재환은 이를 위해 삼강대 계약체 체결 운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개인적 사생활을 지키는 것, 개인적 생활을 위한 것, 그리고 동시에 사회활동을 위한 것, 이들을 위한 해법 모색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3-4개 정도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개인적 사생활을 지키는 것, 개인적 생활을 위한 것, 그리고 동시에 사회활동을 위한 것, 이들을 위한 해법 모색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3-4개 정도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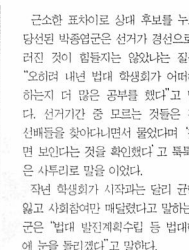
한양대 학생회장 당선자 임성민(신문방송 90)양

"처음에는 열광했지만 이제 며칠 지나니까 내게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난다"는 임성민(신문방송 90)양은 "요즘 책임감을 사트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계열제 철폐, 학회 활성화, 자주교류, 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등을 2001년 '약속'으로 들고 나온 임성민은 "사회대에는 과학생물학과 학회화 권이지만 학회의 내용상 보강이나 사회연대활동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사회대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류론 대의회의 수행에 대해서도 "대의회의는 함께 수행하고 싶다. 사회대 600명 학생들을 모두 만나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학생들을 만나고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는 임성민은 모교에서 좀더 알찬 사회대의 모습을 그려본다.



동아리연락처 당선자 오하나(해트남아 90)양

"동아리의 정체성, 현재성'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는 오하나는 "내년 임박한 바쁜이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느끼면서 시작해보고 싶다. 오하나는 "전통이나 사대들이 동아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대학원생들이 주체해서 동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싶다"며 그 시작을 예고했다. "저는 참여를 받고 싶었다. 동아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우선해 두고 싶다"는 오하나는 동아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동안 기조였던 '오'를 되살리는 아카데미 '백년'이 부수적인 지원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오'의 '오'는 '오'였기 때문에 '백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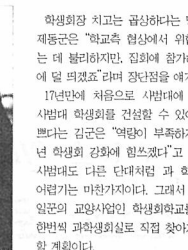
법대학생회장 당선자 박종현(법학 90)군

군소환 표지자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박종현군은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질문에 "오하나 내년 반대 학생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 많은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 모르는 것들은 직접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다며 "찾으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특목 짧은 사투리로 말을 이었다. 작년 학생회가 시작하는 달리 군현을 알고 사회참여만 했던것과 말하는 박종현은 "법대 발전계획수립 등 발전현실에 눈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법대발전기구는 학생, 교수들이 참여해 연구수입유용문제, 졸업시험에서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함께 해갈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라고 한다. 김재환은 "민주적인 소통기구가 될 것이다"며 "작년 집행부생활을 통해 느꼈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양대 학생회장 당선자 김재현(리시어 90)

올해 단대별 학생회장은 그 어느해보다도 여성들이 많고, 학번도 낮은 편이다. 김재현장은 둘 다 해당된다. 선거기간 동안 김재현은 사대 학생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가장 큰 단과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강의실 이용률이 67%만 되지 않는다'는 강의실 배치를 살피고 한민련 열람실을 꼭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학년과 4학년'을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김재현은 "내년 임박한 세미제와 세계영화제를 잘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미제는 영화, 소도미 등이 직접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고, 세계영화제는 세미제와 같은 노모부를 살려 세계영화제를 문화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행사도 추진한 한 해를 기대한다.



서양대 학생회장 당선자 김재현(리시어 90)

올해 단대별 학생회장은 그 어느해보다도 여성들이 많고, 학번도 낮은 편이다. 김재현장은 둘 다 해당된다. 선거기간 동안 김재현은 사대 학생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가장 큰 단과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강의실 이용률이 67%만 되지 않는다'는 강의실 배치를 살피고 한민련 열람실을 꼭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학년과 4학년'을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김재현은 "내년 임박한 세미제와 세계영화제를 잘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미제는 영화, 소도미 등이 직접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고, 세계영화제는 세미제와 같은 노모부를 살려 세계영화제를 문화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행사도 추진한 한 해를 기대한다.



동양대 학생회장 당선자 김갑수(해트남아 90)군

가장 늦게 치러진 단대선거 당선자 김갑수는 올해 과 학생회장으로서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좀더 준비를 하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갑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하부 행위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동대는 현재까지 세대에선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과 학생회장으로서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좀더 준비를 하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갑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하부 행위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외대학보 159

보도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

‘올해 안에 끝장 내자’ 한 목소리 모은 자리

국가보안법 철폐 자전거 순례단 등 활동 우리학교 니주철군 연행됐다 풀려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전국 23개 단체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홍근수)는 지난 10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법 청원을 단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다 지난 19일(금)부터는 소속 단체 대표 150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각 지역 청년단체들로 이루어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간)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자전거 순례를 기획, 지난 1일(금)과 5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로 상경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개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흐름을 정리하고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 행사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 학생·시민·사회단체 관련자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석은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범국민대회에서 홍근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대회사로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현실과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진 정치 현실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김대중 정부가 진정으로 인권국가, 경제



살기기를 하려고 한다면 더가오는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수상식 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정광호 의원은 “일본과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자주민주정권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 물론 아닌 비통질의 약입이고 이슬만, 박정호, 전두환 등 역대정권의 통

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 남북화해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박물관이나 전시해야 할 약입이라는 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미국 장학생들이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6가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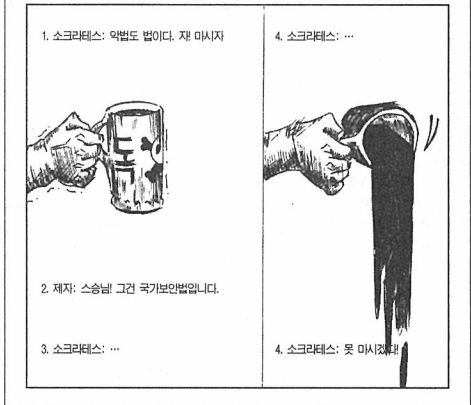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병력의 봉쇄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행진이 무산되었다. 행진이 무산된 뒤 문정현 신부, 이종민 법민연 의장, 노수의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3인의 대표단이 국회의장에게 보안법 폐지 촉구서한을 전달하는 동안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연행된 학생들 석방을 요구하며 오후 6시까지 집회는 계속되었다.

대표단 사한 전달 보고서에 노수의 전국연합 의장은 의장장보비서관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완전 동의하는 지(개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회가내 상황 잘 것인가 여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해 장공보비서관은 의장의 입장에서 누구의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회기 내 상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과 3-4일 내에 답변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리학교 용인배틀러 니주철(경상·경영정보 05)을 비롯한 경기동부총련 소속 학생 5명이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나군을 제외한 4명은 이날 오후 6시경 풀려났으나 나군은 지난 2일(일) 오후에 풀려났다.

그·림·타·캐 <13>

정현도 기자



보도 - 명동성당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단

가능성은 필요성에서 찾습니다

‘무평의 성지’라 불리는 명동성당 입구 바깥에는 크고 작은 농성 전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 중, 첫 번째 전막이 한총련 중앙집행위원들의 농성 거점이다.

지난 11월 26일(일), 이회철 한총련 의장(조선대 총학생회장), 변재준 남총련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 박지현 사총련 의장(경기도 총학생회장), 박지현 강총련 의장(한림대 총학생회장) 등 4인법집행위원들의 농성 거점을 찾았다. 한총련 중앙집행위원들은 이곳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법민연 이적구경 철폐’를 위한 투쟁에 농성이 돌입, 30일(목)부터는 단식농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대회’가 있었던 지난 1일(금), 기지는 이 농성장을 찾았다. 각종 유인물이며 대치로, 담요 등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농성 전막 안에 들어서자 ‘가능성은 필요성에서 찾자’라는 농성의 가치를 적은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민생현안은 뒷전이고 말싸움으로 소진되고 있는 정국국회 운영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될지 걱정만, 우리 반이민자 ‘폐지’의 당위만은 어느 때보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할까지 다해가 하지 않겠습니까?’ 명동성당 농성단장인 한총련 의장 이회철씨의 설명이다.

그간 국가보안법이나 정치수배 해제 등 사회적 현안을 위한 농성은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한총련 의장과 지역총련 의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투쟁’로 단식

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이회철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 통일을 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이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운동세력들의 움직임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각 학교는 선거철이라 학생의 체제가 느슨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중앙집행위원 농성을 함으로써 결박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올해 안에 꼭 폐지를 이루어야 할 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연루되어 연행·구속된 학생이 올해만 해도 500명을 넘는다. 며칠간의 단식과 추운 날씨 탓인지 농성단원들의 얼굴은 수척하고 입술은 부르트 있었지만 표정과 말투에는 씩씩함이 배어 있었다. 어려운 점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대식 말투로 “네, 없습니다”라고 농담조로 대답하는 박지현 의장의 모습을 뒤로하며 농성단을 빠져나갔다.

사회부



만나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의 새천년 민주당 김희선 의원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폐지 가능합니다”



지난 27일 김희선 의원을 비롯, 여야 2인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철폐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뒤이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정책

의 추진, 이산가족 및 장기수배자의 해결, 남북경제협력의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면하다.

국보법은 또 현행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반인권적 조항들로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여야의원들이 뜻을 모아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면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법안 통과계획은 국보법 폐지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각계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등으로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 개헌적인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재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보법철폐회의의 당위성을 동료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와의 연대계획은

실질적인 폐지를 위해 이반에 발의한 법안을 국회 안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 안에서의 설명 및 설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힘을 더 보태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들이 광범한 여론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는 국회안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일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와의 직접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총련과 법민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한총련과 법민련 등 공민적인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불법단체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보법 폐지로 한총련이나 법민련과 같은 민간통일운동단체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다 활성화된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돼야 한다.

한총련 대의원 탈퇴 불응시 수배구속은 정당 한 집결행인가

한총련은 총학생회의의 연행체로 알고 있다. 이같은 학생회 조직에 대한 가립 탈퇴 자체가 합·불법의 판단근거가 되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폐해중 하나인 광범위한 법 적용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에서 기인한 문제로 이것 역시 국보법 철폐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한미 한미면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한미당장 정거 및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지 못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폐지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학생들은 좀 더 지켜봐주고 더 이상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수배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부

동서/맥/Maxim
www.dongsuh.co.kr



자꾸 자꾸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

제가 당신의 여왕이라구요?

그러면 알아요? 여왕이 좋아하는 향기가 어떤건지.

당신의 향기, 맥심의 향기

자꾸자꾸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

향이 좋은 커피, 맥심

Maxim



커피 본연의 맛 오리지널 부드러운 모카로트 마일드 깊고 풍부한 리치

영화평 - 여성 인권영화 '평행선'을 보고

끝끝내 만나지 못한 남과 여의 평행선

그것은 외로운 싸움이었다.
98년 8월 출신 현대자동차 식당조합원 144명이 집단레고 당했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고..."
99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아침출근투쟁, 2000년 5월10일 노조사무실 앞 천막농성, 5월 22일 19명 식발투쟁, 5월 27일 8명 단식농성, 급기야 6월2일에는 컵옷을 벗은 채"
원칙복직되지 않으면 자결하겠다"며 회사본관 점거. 하지만 늙은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사도, 언론도, 심지어 노동조합까지도...

여성의 문제는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권력의 시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최근에 제 5회 인권영화제에서 이러한 논제를 잘 반영해주는 영화가 소개됐다. 바로 '평행선 (제 5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제 4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상영작)'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그것이다. 이 작품은 98년 정리해고된 현대자동차 노조 소속의 144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원칙복직'을 위한 3년 동안의 투쟁 일기를 담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외부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측과 노동자로써 대립하고, 노조 안에서는 대부분의 수뇌 집행위원들이나 다름없이 나오는 현대 자동차 노조의 상무집행위원들 중에서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성인 조직 안에서 상층되는 성차별적 권력이 보여진다.

가장 충격적이고 자처하며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혹은 그렇게 하고있는 듯이 보이는 노조, 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조차 아이러니하게도 그 발생학적 배경이 은연중 제 지금까지 아무런 외재감집도 하지 않는다. 단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며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조에서조차 성차별적 권력은 존재한다

지 당위성의 색을 띤 채 흘러온 과정 속에 오늘날 그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아 그 심각성의 정도가 보다 심화되고 할 수 있겠다. 권력의 상층이라는 문제에 대한 재고를 '내부적 갈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 문제, 즉 노동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권력에 생존권을 걸고 참예한 대립적 구조를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감추어진 조직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그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대립이 불가피한 현상은 '평행선'이라는 제목이 잘 반영하고 있다. 평행선은 자신과 노동의 평행선이자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끝끝내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성의 자질을 지닌 자식들 사이의 중간에는 양극으로만 조정되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자석이 놓여있다. 그 거대한 자석으로 인해 그녀들의 나침반은 쉽게 고정되지

않는다.
"144명은 영원히 정리해고자로 남게 되었다"는 자막으로 다큐멘터리는 끝난다. 지난 6월9일 여성해고자들이 원칙복직이 답지 있지 않은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조합조차 그들의 복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이 다큐멘터리가 '해방의 기쁨' 혹은 '형식 반향에 그치기'만은 아니다.
여성의 동등권을 주장한 최초의 그룹은 그나마 사회 속에서 특권을 누리던 소수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들이었다. 같은 여성이라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그 권리와 지위가 현저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수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행선'의 144명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가 아니다.

평행선은 자본과 노동의 평행선이자 여성과 남성의 끝끝내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기도 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백과사전적 정의인 셈이다. 그러한 그들의 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은 여성해방의 요체는 노동권이며, 이것이 여성과 경제적 자립을 가져와 남성과 동등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으며, 문제는 두 성간의 투쟁이 아니라 계급사회의 철폐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운동은 남성중심주의의 권력과 싸워야하는 동시에 부르주아적 낡게의 싸워야하는 이중적인 짐을 가짐을 말한다. 성차 문제는 '차이'라는 말이 예로부터 인간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는데 있다. 여권 운동가들은 동등권을 위해 이 차이를 억지로 지우려 애썼던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등은 이 성차를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해방은 남성해방과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여성이 경쟁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 문제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표현되는 계급문제이기 때문에 남녀가 연합하여 공격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예기한 '평행선'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성이 분리된 채 취하는 행동은 이중으로 낡아 선 같고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고 현상 유지에 언제까지나 순응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남녀 노동력의 이용 여건은 양성의 연합행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남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과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의식하고 있는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여성들이 수습된 싸움 결과 여성운동은 활성화되고 세상은 변하고 있다. 남녀고용차별금지법, 성폭력방지법 등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과 제도적 장치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차별 받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대안이 없는 문화적 현상에 멈추어있을 것인가?

정해진 채 권력에 당위성을 실어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위 작품을 통해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나침반을 고정하고 그 방향으로 질주해야 하기

에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다.

이지환 (서화·영어 96)



조 찬 일 (중국과 11회 졸업.)

노을 진 고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물살 가르며 떠돌던 물새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저 흔들리는 꽃밭처럼山野에 뒤덮인 익새들.

아직은 뜨거운 태양이 어둠에 묻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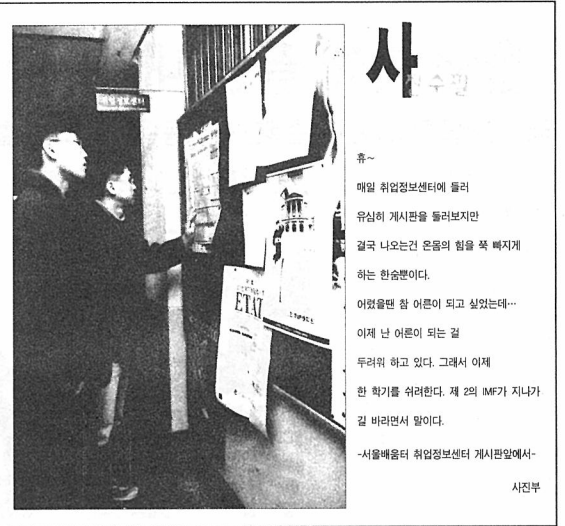
말을 새우대 기다리는 은빛과 황혼의 시간.

어둠의 자락은 내리고 영혼의 그림자는 작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너무 멀다.

희미한 기억에 잃어버린 이름이여! 너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가.

너와 나는 오늘날도 오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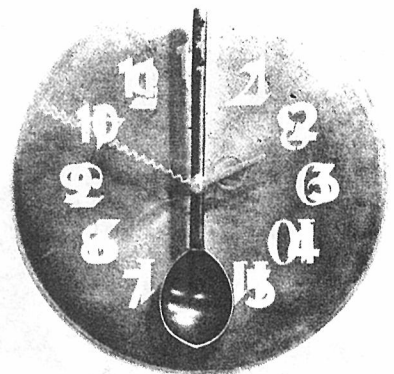


사수

유심히 게시판을 둘러보지만 결국 나오는건 온몸의 힘을 뚝 빼지게 하는 한숨뿐이다.
어렸을때 참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난 어른이 되는 걸 두려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쉬려한다. 제 2회 IMF가 지나가 길 바리면서 말이다.
-서울백운대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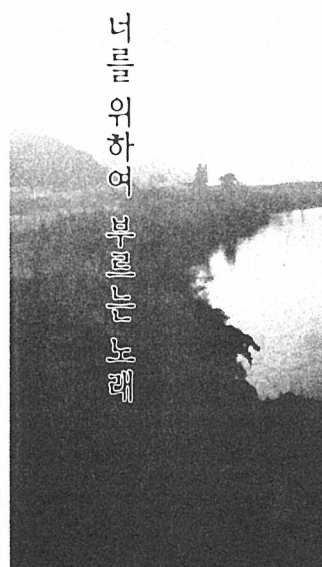
사진부

내년엔에 만나요



해가 뜨는 지금, 달이 차고 기우는 그리고 별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어느덧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 외대학보가 종간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완료를 세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강요하며 발순기락을 위협하는 IMF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매일수목 점점 더 단단해지는 캠퍼리처럼 우리도 더욱더 단단해져 추운 겨울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외대학보도 따뜻한 봄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구요, 맛있는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족자주언론 오디화보



너를 위하여 부려가노라